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캠USA' 동역자 여러분께,

지난 1월2일 LA를 출발하여, 블라디보스톡 북쪽 노보삭진스키(김문일 선교사)에서의 캠프를 시작으로, 중국 연길 '사랑의 집' 캠프와 송강하 캠프, 한국의 철원(우리들교회, 김동욱 목사) 캠프와 제주(의귀교회, 류승선 목사) 캠프 그리고 캄보디아(깜뽕잠, 김진욱 선교사) 캠프와 미얀마(메야트콩, 박종석 선교사) 캠프/송강하 상담캠프(미얀마 캠프와 동시에 진행되었음)까지, 약 두 달에 걸쳐 8군데 캠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덕분이고 다음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열악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곳곳하게 함께해주신 팀원들과, 묵묵하게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기쁨을 나눕니다.

실제로 이번 겨울 캠프는 새로운 지역(예전에 캠프를 열었던 지역이었지만, 현지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다른 곳에서 캠프를 진행했음)이 많아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의 깊이만큼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현지 선교사님(또는 사역자와 성도)의 헌신적인 도움과 기도 덕분에 예전에 느낄 수 없었던 감동을 받았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특히 영하 20도 이하 지역인 연해주(노보삭진스키)와 중국 동북성(송강하와 연길)의 캠프에서 영상 40도 이상의 캄보디아(깜뽕잠) 캠프와 미얀마(메야트콩) 캠프로의 이동은, 그 온도 차이만큼이나 커다란 은혜로 각 캠프마다 새로운 감동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번 캠프를 다녀와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된 것은, 저희 "한캠"의 사역이 해를 거듭할수록 그 은혜의 깊이가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사실같이 보이지만, 이런 선교사역에 영적인 상대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엔 여러분의 헌신적인 기도와 후원이 뒷바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기도제목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저희 "한캠"의 진로와 사역 방법이 관련된 것이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 믿기에 감히 이곳을 통해 부탁을 드리려 합니다.

1. 저희들이 현재 매년(또는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캠프지역의 영적 부흥이 있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사역자와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현지의 부흥은 저희 "한캠"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2. 올 여름 일정과 캠프지역 선정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매년 지역에 따라 한 차례 또는 두 차례의 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엔 중국 하이문 캠프와 아프리카의 르완다/콩고에서의 캠프가 새롭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정의 초안(Draft)은, 하이문(중국 상해 근처)/가오송(타이완)/마리엘(러시아 카잔 근처)/르완다, 콩고(아프리카 중동부)/철원과 제주(한국)/노보삭진스키(러시아 연해주 지역)/중국 송강하 지역으로 이상 8군데입니다.

3. 저의 진로와 관련한 기도제목입니다. 제가 사역지로 파송받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역지와 일시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너무 늦지 않게 나가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사 안수와 관련해서도 기도 중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겨울 캠프 때문에 오랜만에 쓰는 글이 길어졌지만, 오늘의 말씀(고후 7:2-7)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일을 돌아보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당부한 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웅졸한 마음을 버리고, 여러분 마음을 (내게) 넓게 열어 달라"는 부탁의 말입니다.(2절) 물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려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면서 말입니다.(3절) 그리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자부심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 사실로 드러나서 기쁨이 무척 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4절)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마케도니아에서의 사역에 유대인들 때문에 무척 힘들고 어려웠습니다.(행전20:1-3; 고후4:8) 그런 가운데 디도 편에 들려온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디도를 통해 '위로의 하나님'을 다시 한 번 깨닫고 높이게 된 것입니다.(6절)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해보기 위해서는 선교지에서의 사역이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또한 이런 경험을 캠프 사역 중에 여러 번 체험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6:1), 사랑하는 '한캠USA' 동역자 여러분께 권면하며 이 글을 줄일까 합니다. 부디, 꼭 시간을 내어 선교지를 찾고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철현 올림